

유비쿼터스,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찬규 (선교사)



2008년 5월, 태국 남부 이슬람 지역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방목에서 만났다. 선교사님은 두 자녀도 뒤를 이어 그 지역 복음화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이슬람이 깊이 뿌리내린 지역이라 현지 학교 대신 가정에서 성경과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독교 학교 설립 소식들이 넘쳐나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최전방 지역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현실과 지원은 왜 이런 것일까? 우리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

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kanacademy.com, courses.org!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교육 소외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나눔이 있는 곳이다. 한국 선교는 그동안 많은 열매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러나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MK와 교육현황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175개국에 19,79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며 17,432명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전체의 49.2%, 약 8500여 명이 학생이다. 학교유형별로는 지역학교 35.9%, 국제학교 28.6%, 한국의 학교 14.6%, 홈스쿨링 9.0%, MK학교 8.9%, 기타 3.0%이다.¹ 이 통계에 따르면 최소한 64.5%, 약 5400명이 외국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홈스쿨링을 받고 있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9%, 700여 명이 나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유아부터 학령기의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1~2년의 훈련과 정착 기간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때 성인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적 필요가 요구되는 자녀들이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2011년 봄,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명의 저학년 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캠프 기간 중 한 아이가 쓰기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어는 물론 현지 언어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였다. 특히 쓰기 수업을 싫어해서 현지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후 스카이프 수업을 받는 6개월 동안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교준비 등 2년간 타문화로의 잦은 이동이 정서 불안 및 사회성 발달 장애를 가져왔고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2년의 심리치료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권유 받고 현재는 한국으로 돌아와 많이 밝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처럼 교육적 대안이 없는 선교사 가정의 훈련과 이동은 결국 몇 년 후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 아이의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필리핀의 마닐라한국아카데미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와 공부하는 것이 꽤 익숙한 일이다. 학년을 낮추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언어에 매달리다 보니 진로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음 이야기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워릭대학교의 정신의학자인 스와란 싱(Swaran Singh) 박사에 따르면 잦은 전학은 아이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으며 정신병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² 김현식, 문혜진은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사와 전학이 아동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들에 착안하여 이사나 전학이 국어와 수학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³ 제3세계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고 있는 비엔나국제학교는 ESL과정과 함께 Mother Tongue Program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모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⁴

문상철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편하게 느끼는 의사소통 언어와 대학 진학할 언어권의 나라가 다양해서 언어와 관련하여 충돌될 기대들로 인해 혼동감과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하였고, 또 'MK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본국에 귀국할 때 본격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⁵

1. 문상철, "한국선교사자녀교육의 과제", KRIM(2013): 8-9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101088&sid1=001>
 3. 이사와 전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식, 문혜진, 교육학연구 제50권 제3호 (2012. 9) pp.277-302
 4. http://www.vis.ac.at/show_content2.php?s2id=73&language=en
 비엔나 국제학교 ESL과정과 함께 Mother Tongue Programme를 개설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국어 학습을 지원 취지를 밝히고 있다. 'There is a lot of research to show that children who have a strong foundation in their home language are more successful at school than monolinguals and enjoy a greater feeling of self-worth and identity'
 5. 문상철, "한국선교사자녀교육의 과제" KRIM(2013): 20-21

타문화 적응과 이동성이 불가피한 선교적 환경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파송 단체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던져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동북지역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

2011년 가을, 동아시아 동북지역의 한 선교지에서는 매일 오후 4시에 현지학교를 다니는 8명의 학생들이 작은 교실로 모여들었다. 2,4,5,6학년이 한 음악학원 강의실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였다.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학부모가 4개 학년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였다. 수업이라기보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형태였다. 어린 나이에 그곳에 온 아이들은 국어교과서의 질문이나 용어가 어려운 듯했다. 다음 날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시험과 읽기능력 테스트를 했다. 결과를 궁금해 하는 부모님들에게 그저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격려한 후 학습 계획을 세워 다시 연락하겠다고 돌아왔다. 대부분 40% 이하의 성적들이 나왔고 심지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답을 달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

그 해 여러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면서 비슷비슷한 교육 환경에 안타까웠다. 외국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부분이고 기숙사는 중학생 이상만 입학이 가능했다. 또한 자녀교육 문제는 선교사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주변에 집중 거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비가 비싸고 영어준비가 안 되어서 입학이 거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 다른 교육적 대안이 없는 것인가?

나눔을 향한 도전! 30분 화상 수업!

“영미야 안녕!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 얼굴은 보이고? 화면이 흐트러서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도 작게 들리고? 뭐가 문제지? 볼륨을 높여 볼래? 와~! 이제 잘 들리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 너무 좋다……” 인터넷 화상수업은 다양한 선교지에 교육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모국어는 정체성 형성과 모든 학습의 기초라서 한국어 수업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1회 30분 말하기·듣기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교육자료와 안내서를 보냈다.

수업 이야기 1

처음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깜짝 놀랐다.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중국인이었다.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과 결혼한 경우다. 중국어는 잘 하는데, 한국말은 자신 없어 하고 한글도 터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스카이프 수업을 통해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쳤는데 다른 학생에 비해 학습 속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어머니를 위해 한국어 강좌를 열고 아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해드렸더니, 일년 후 실력이 늘어난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만큼이나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졌다.

수업 이야기 2

하늘과 별과 지붕만 있는 곳에 사는 아이들이 있다. 2010년 훈련을 받던 선교사님이 “저희가 갈 선교지를 탐방하고 있는데 벽과 지붕과 하늘만 있더라구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 아이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 그때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만 외장 하드에 교육 자료를 담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거주비자가 없으면 학교를 다녀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아랍 아이들의 따돌림과 폭력에 홈스쿨을 선택해야 하는 나라! 결국 검정고시밖에는 대안이 없다. 시차는 5시간이고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차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다섯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수줍은 미소의 헤민이, 중학생이지만 초등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하는 안 선생님 자녀들, 홈스쿨을 선택해야 하는 조이, 사막의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많은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산다.

스카이프 수업은 단순히 말하기, 듣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홈스쿨링 학생에게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고, 현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힘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이

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며, 사춘기 심대들이 고민을 나누는 비밀의 방이기도 하다. 부모님에게는 교사와 상담하며 한 아이의 인생에 대해 기도제목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인터넷 속도가 1MB도 안 되어서 자주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안 들려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학년 말이 되면 선생님과의 이별이 싫어서 눈물을 비치는 아이들과 함께 우는 교사들의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2주간의 특별한 학교

화상수업이라는 제한성 때문에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과 사랑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2주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교사들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국어 3시간, 특별학습 3시간으로, 학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객관적인 학습평가와 학부모 상담도 진행된다.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찾아온 경험에 없는 아이들에게 오신 첫손님이시네요!” 이 글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감사의 문장이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희망들

2014년 3월 현재, 동아시아, 인도, 네팔, 오만, 카타르에 거주하는 선교사 자녀 50명이 인터넷으로 선생님과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첫째로 기독교사들의 헌신이다. 젊은이들의 교육적 열정과 헌신, 한국 현지교사들의 60분 사랑의 교육 나눔, 거주 국가와 상관없는 교육 전공자들의 달란트 기부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수단이 우리에게 교육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CCC 단기사역자 8명은 필리핀에서, 현지교사 12명은 한국에서, 2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어, 음악, 영어, 수학, 보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 남편을 따라 출국하신 음악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통합한 음악 수업을 2개국 홈스쿨링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음악 교육과정도 개발 중이다.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자신이 거하는 곳에서 자신의 달란트로 섬기는 선교사도 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카이프 수업의 학습효과와 필요성은 검증을 마쳐가는 단계이다. 남은 과제는 좋은 기독교사들의 참여, 역사 등의 교육과정 개발과 제공, 그리고 인터넷이 쉽지 않은 지역을 위한 동영상 강의 제작과 인터넷 전문가 양성 등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방학이면 자신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학교! 이제 자신의 달란트를 나눌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교육선교의 현장이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교육은 미래를 꿈꾸게 한다. 교사는 교육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공이다.

또한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타자이다.”



정찬규 경인교대, 인하대학교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 상담전공, CCTM 기독교사모임 대표역임하였다. 2008년 18년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교사선교사로 파송 받아 현재 CCC파송선교사, 필리핀 마닐라한국아카데미 학습지원센터 교감으로 섬기고 있다. kjemo@naver.com에 문의하면 된다.

MK사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국내 교사선교사 훈련 및 정보 GMF의 MKNEST www.mknest.org, 02-2652-3519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MK사역과 훈련 KOKI ollegilbert@nate.com 010-3226-0791, KoKi하우스 070-7607-3117
필리핀 MK학교 마닐라한국아카데미 www.mha.or.kr 070-8638-3355
인터넷을 통한 원격수업지원사역 학습지원센터 mhamini@naver.com 070-8235-8425